



미국 증시, CPI, 어닝시즌 앞두고 소폭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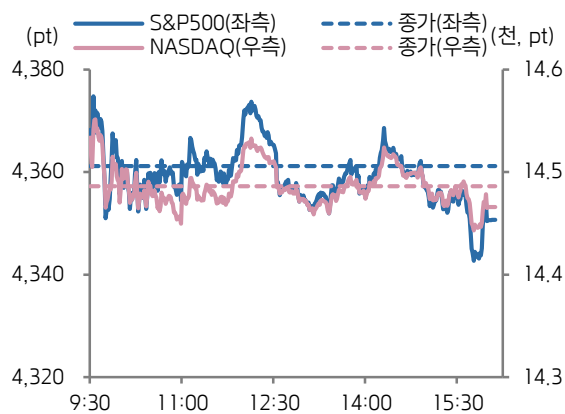
미국 증시 리뷰

12일(화) 미국 증시는 주요 지표 및 어닝시즌을 앞두고 하락 마감. 13일 미국 소비자물가지표, JP 모건, 블랙록 등 대형 은행주들의 3 분기 기업 실적, 9 월 FOMC 의사록 등 주요 발표들을 앞두고 관망세 확대. 인플레이션 부담, 헝가리의 세번째 달러채 이자 지급 실패 소식, IMF의 글로벌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조정도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함(다우 -0.34%, S&P500 -0.24%, 나스닥 -0.14%, 러셀 2000 +0.61%).

IMF는 이날 코로나 19로 인한 공급망 차질을 지적하며 선진국들의 경제성장률 전망들을 하향조정(2021년 DM 5.2%, -0.4%p). 국가별로 미국 성장률은 2021년 6.0%(-1.0%p), 독일 3.2%(-0.4%p), 일본 2.4%(-0.4%p). 한편, 한국 경제 성장률은 2021년 4.3%(유지), 2022년 3.3%(-0.1%p) 등 2022년 전망치만 소폭 하향 조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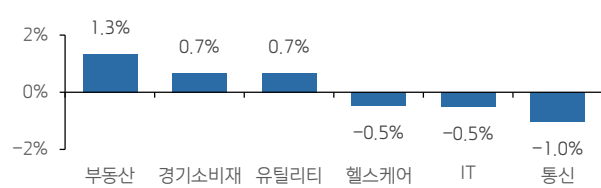
클라리다와 보스틱 등 연준위원들의 인플레이션 우려 및 테이퍼링 관련 발언은 투자심리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 다만 연준의 기존 통화정책 스탠스와 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장 반응이 크진 않았음. 전거래일 콜럼버스 데이로 휴일이었던 미국 채권 시장은 이날 10년물 입찰 호조 영향으로 금리 소폭 하락(미국채 10년물 금리 -3bp, 1.58%) 유가는 지난 3거래일 1% 이상 상승 흐름 속에서 숨고르기 양상을 보였지만, 80달러선을 지키며 인플레이션 압력은 지속됨. 업종별로 부동산(+1.3%), 경기소비재(+0.7%), 유틸리티(+0.7%)는 상승, 커뮤니케이션스(-1.1%), IT(-0.5%), 헬스케어(-0.5%), 산업재(-0.3%)는 하락.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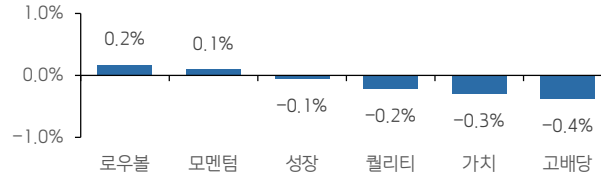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특징주

아메리칸 에어라인(+0.8%): 4 분기 실적 가이드선 상향 조정 소식으로 상승. 이에 힘입어 유나이티드(+1.0%), 델타(+0.8%) 등 다른 항공사들도 강세 흐름 보임. 전일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의 주말간 2천여편 이상 운행 취소 이슈가 사우스웨스트에 제한된 문제로 인식.

큐어백(-7.7%): 코로나 19 백신 후보 개발을 중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급락. 큐어백의 결정은 유럽 EMA(의약품청)가 긴급 승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정 이후 발표. 하지만 장 시장 전 15% 이상 급락에서 낙폭을 축소.

에어비앤비(+3.7%): 코웬은 투자의견을 중립에서 아웃퍼폼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 상승. 코웬은 2022 년 여행 회복이 시장 예상보다 클 것과 호텔식이 아닌 숙박의 이용 확대는 여행 산업의 장기적인 변화일 것이라고 전망.

MGM(+9.6%): 크레딧 스위스의 투자의견을 중립에서 아웃퍼폼으로 업그레이드. 상향 조정 요인으로 MGM 의 내부 긍정적인 변화들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 목표주가를 33 달러에서 68 달러로 큰 폭 상향.

테슬라(+1.7%): 9 월 중국 판매량이 5.6 만를 넘었다는 소식에 주가 긍정적으로 반응. 상해 생산 시작 이후 가장 많은 판매량 기록.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4,350.65	-0.24%	USD/KRW	1,198.85	+0.34%
NASDAQ	14,465.92	-0.14%	달러 지수	94.51	+0.21%
다우	34,378.34	-0.34%	EUR/USD	1.15	-0.01%
VIX	19.85	-0.75%	USD/CNH	6.46	-0.01%
러셀 2000	2,234.27	+0.61%	USD/JPY	113.59	-0.02%
필라. 반도체	3,178.15	-1.34%	채권시장		
다우 운송	14,723.52	+0.92%	국고채 3년	1.800	+10.8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2.427	+6.5bp
Eurostoxx50	4,055.09	-0.43%	미국 국채 2년	0.338	+2bp
MSCI 전세계 지수	715.55	-0.27%	미국 국채 10년	1.577	-3.5bp
MSCI DM 지수	3,031.57	-0.4%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1,265.65	+0.68%	WTI	80.64	+0.15%
MSCI 한국 ETF	76.47	-1.7%	금	1759.3	+0.21%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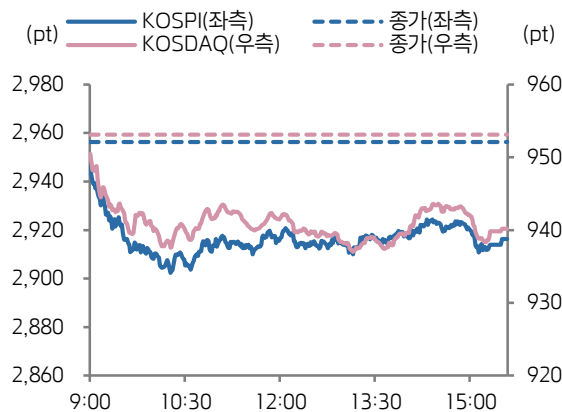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7%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51%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36%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98.84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보험권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중 발표되는 중국의 9월 수출입 지표 2. 전거래일 코스피 급락을 주도했던 대형 반도체주들의 주가 반등 여부 3. 아이폰 생산 축소 가능성에 따른 국내 관련 밸류체인주들의 주가 변동성 확대 가능성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IMF 의 2021 년 주요국 성장률 전망치 하향(한국 성장률은 4.3%로 유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델타 변이 확산 이외에도 공급 병목현상 장기화가 성장 전망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 이 같은 공급 문제는 현재의 인플레이션 및 미래의 기대 인플레이션에 상승 압력을 가하면서, 연준 등 메이저 중앙은행들이 물가 대응을 위해 예상보다 빨리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임.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 역시 고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진단하면서도, 대부분 연준 위원들이 인플레 위험을 기존의 예상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발언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음. 다만,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지적했듯이, "일시적"이라는 것이 "단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지속성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해볼 필요. 금일 9 월 미국 소비자물가(예상 5.3%YoY) 발표 이후에도 인플레 경계감은 상당기간 이어지겠으나, 지속성 또한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장기화로 인한 경기 위축 혹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과도하다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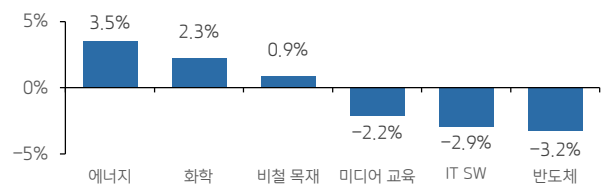
전거래일에도 1% 넘게 약세를 보였던 한국 증시는 최근 인플레 등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주가 급락이 과도했다는 인식 속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 다만 장중 발표 예정인 중국의 9 월 수출입 지표, 장 마감 후 저녁시간 발표 예정인 미국 소비자물가 등 중국 경기 모멘텀 및 인플레 지속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벤트를 둘러싼 경계심리가 지수의 반등 탄력을 제한할 가능성 존재. 전거래일 미국 증시에서 마이크론테크놀로지(-3.6%)가 메모리 가격 하락 우려 재 부각으로 급락하긴 했으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국내 대형반도체주들은 상당부분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 한편, 미국 장 마감 후 반도체 칩 부족에 따른 애플의 아이폰 생산 축소 가능성이 뉴스 플로우상으로 나오고 있음을 감안 시, 금일 국내 아이폰 밸류 체인 관련주들의 주가 변동성 확대에 유의할 필요.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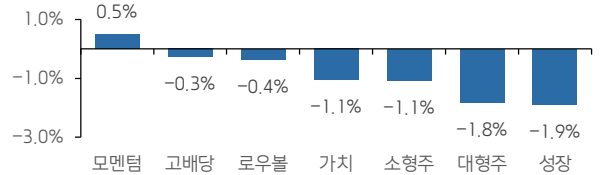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사,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